

내달부터 '심야책방' 운영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올해 사업 동참 전국 서점 70곳 선정
전북은 군산 한길문고 나운점·남원 신성지서점 등 2곳

오는 6월부터 늦은 시간까지 서점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된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25일 '2020 1차 심야책방' 사업에 동참할 전국 서점 7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야책방에 선정된 서점은 폐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 각 서점별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를 연다. 1차 사업은 다음달 12일과 26일, 7월 10일과 31일에 열린다. 금요일이다. 심야책방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중심이 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일과 후 편하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1차 사업에 선정된 서점은 강원 3곳, 경기 11곳, 경남 5곳, 경북 1곳, 광주 2곳, 대구 2곳, 대전 2곳, 부산 5곳, 서울 18곳, 울산 1곳, 인천 4곳, 전남 3곳, 전북 2곳, 제주 5곳, 충남 3곳, 충북 3곳 등이다. 책갈피 만들기, 독서법 강연, 글쓰기 교실, 책과 함께 하는 인생 토론, 지역 출신 시인과 함께하는 시 낭송, 인문학 교실, 웹툰 그리기, 필사교실, 인형극 관람, 북토크, 1인 출판사 대표와의 대화, 전문가와 나누는 우리 사회 전망, 수제 맥주 탐방, 책 속 명문장 찾기 등의 프로그램이 예정돼있다. 한국서련 관계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문화

프로그램의 내용, 14개 지역별 분배 등을 기준으로 외부 심사위원을 모셔 심사를 완료했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가까운 심야책방 운영 서점을 찾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고, 서점주들은 심야책방 기회와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를 조금이나마 이겨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1차 심야책방 운영 서점 70곳의 목록은 한국서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서점의 문화행사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서련 홈페이지와 심야책방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안내된다. 2020 2차 심야책방은 오는 8~11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참여서점 신청은 7월 중 공지한다. 한편, 전북지역 1차 심야책방 운영 서점은 군산 한길문고 나운점과 남원 신성지서점 등 2곳이다. /뉴시스

양성 평등·장애인 인식 개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6일 일반교육 개강식·양성평등 특강
오준규 전북장애인복지관 팀장 초청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조성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26일 센터 대강당에서 2020년 일반교육 개강식 및 양성평등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해 개강식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20년 현재 교육운영 교수 위촉식과 지난해 강사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위촉교수 시상, 이어 고객 만족도 설문 우수 응답자 무료 수강권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평등 세상' 동영상도 상영된다. 특히, '양성평등·장애인인식개선'이라는 주제로 전북장애인복지관 오준규 팀장의 특강을 통해 장애인 인권 중심의 양성평등교육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 사회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1기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폐강했다"며 "생계를 위협받는 시간출강 위촉교수들의 고충을 덜

고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수요자 욕구에 의해 개강을 하는 대신 수강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체계 구축, 책상 간 칸막이 설치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교육개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한 성별 갈등 해소와 실질적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양성평등 특강 뿐만 아니라 성평등콘텐츠공모전, (찾아가는) 양성평등포스터전, 영유아교사대상 양성평등교육, (찾아가는) 성인지각수성인형극, 조부모성평등비른생활교육, 여성인재아카데미, 차세대 리더스쿨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사업팀(254-3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민족의 한·염원, 빛·소리로 반영'

조영희 '천년아리랑, 꿈의 무용'
대한민국사진대전 대상 선정
수상자 전시는 내달 24~28일



조영희작 '천년아리랑, 꿈의 무용'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김양평)가 주최·주관한 국내 최대의 사진공모전인 제 38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가 최근 대한민국예술인센터 3층 로운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심사에서는 대회장 김양평, 운영위원장 박종길, 심사위원장 김춘성을 비롯한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그리고 관객객 100여명이 참석한 공개심사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1,878점의 훌륭한 작품이 접수됐다. 대회장인 김양평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여러 작가님들께서 대한민국사진대전에서 선보이신 훌륭한 작품들은 한국의 사진 예술을 이만듬이나 성장시켜왔다. 앞으로 구상파트와 현대사진의 흐름인 비구상이라는 양쪽 날개가 균형을 잡아 한국 사진예술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춘성 심사위원장, 문금영, 배병수, 선종백, 손석운, 이덕만, 장호숙, 최기환, 최자열 총 9명의 심사위원은 13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작에 제주의 중견작가인 조영희의 '천년아리랑, 꿈의 무용'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장은 "대상 작품은 한과 염원이라는 정서가 빛과 소리로 반영돼 한 장면이 우아함과 화려함으로 담긴 수작이다."는 심사평을 남겼다. 대상 1점과 우수상 2점을 포함해 입상 40점, 입선 336점 총 376점이 영예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예방방지를 위해 심사장의 모든 인원이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수칙을 준수하

여 심사가 진행되었고 최종 심사를 마치고 대상작품이 발표되는 순간 참석자 모두는 기립 박수로 수상을 축하함으로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수상작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에서 전시가 진행 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사진예술의 현재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성 기자

신인 만화가 발굴... 네이버웹툰최강자전·창작만화 공모

신인 만화가 육성과 우수 작품 발굴을 위한 만화 공모전이 잇따라 열린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영상진흥원)은 25일 '2020 네이버웹툰 최강자전'과 '제18회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개최 소식을 알렸다. '2020 네이버웹툰 최강자전'은 만화영상진흥원과 네이버웹툰이 함께 개최한다. 독자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매년 독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선정작가는 네이버웹툰에 정식으로 연재할 수 있게 돼 신인 작가 등용문으로도 불린다. 예비 심사를 통해 예선 진출 작품 100개를 뽑아 독자 투표에 붙인다. 이 중 독자 투표수가 많은 작품 32개를 대상으로 랭킹전을 실시한다. 대상 1명에는 1000만원의 상금이 최우수상 1명·우수상 1명에는 각 500만원,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네이버웹툰 정식 연재 및 매니지먼트 기회도 제공된다. 장려상 5

명에는 상금 100만원과 네이버웹툰 편집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과 작품 접수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매체 연재 또는 출판 경력 이 없는 예비 만화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18회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은 자유 주제로 단편만화와 카툰 부문 응모작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의 만화 창작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다음달 17일부터 24일까지다. 공모전 수상작에는 총 34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웹툰 플랫폼 '버프툰'에 작품 게재 기회가 제공된다. 대상 수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8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수상 작가들의 작품은 오는 9월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된다. 이를 통해 국내·외 만화 관계자와 독자들에게 소개된다. /뉴시스

박재천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연임... 2023년 5월까지

박재천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사진)이 연임됐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최근 총회를 열고 지난 2017년부터 소리축제를 이끌어 온 박 집행위원장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집행위원장은 오는 2023년 5월까지 3



년 간 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소리축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축제의 비전과 혁신을 제시한 책임자로 인정 받았다. 또 월드뮤직 평론가와 저널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트랜스글로보발드뮤지컬트(TWMC)'가 기획한 '베스트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소리축제를 2년 연속 1위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